

박종호 찬양집회



- 당신만은 못해요

좋은 곳에 살아도 좋은 것을 먹어도
당신의 맘 불편하면 행복이 아닌 거요.
웃고있는 모습이 행복한 거 같아도
마음속에 걱정은 참 많을 거예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가끔씩 난 당신께 슬픔만을 줘요.
너를 사랑한다고 수없이 말을 해도
내가 내 맘이 아닐 땐 화낼 때가 많아요.
세상사는 게 비싸 마음에 틈이 생겨
처음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이세상의 무엇을 나에게 다 준대도
가만히 생각하니 당신만은 못해요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사랑해 난 널 사랑해
(박종호님의 당신만은 못해요 가사 중에서)

하늘을 두 손으로 모두 잡았다는 교만 속에서
주님만을 위해 뜨겁게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생명을 노래하며 한사람의 영혼이라도 그 영
혼을 위해 찬양을 부르는 CCM 선교사 박종호
찬양 집회가 5월 24일 수요일에 열렸습니
다. 12단계 성경공부 중에 9단계 개회 예배 행

사로 많은 교우들이 참석하여 귀한 시간을 가
졌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남을 미워하는 마음은 바로 나
자신을 미워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 행복이 뭔지 몰랐지만 행복에 대해
다시 생각한 좋은 기회였습니다. 행복은 선택
이 아니라 운명과 의무라고 합니다. ‘행복은
크기에 따라 느낌에 비례한다.’가 아니라 생
각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만
큼의 마음만 지니고 행복을 누리려 노력하면
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막막(漠漠)함에 갈급
(渴急)함에 가슴이 저려와도 우리가 가진 심성
(心性)이 세상적 소유의 부족함을 넘어서는 기
쁨이라고 행복이라고 그 향기에 다시금 영혼
으로 느껴지는 감성의 바다로 일렁입니다. 하
나님이 제게 주실 선물을 한꺼번에 다 받으라
시는 데... 받을 손이 모자라는 느낌...손이 모
자라 마음으로 받아 봅니다. 은혜의 날개를 타
고 믿음과 사랑의 우물에서 두레박 출렁거리
도록 생수의 은혜의 물을 길어 올리는 마음이
니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며 보
지 않아도 될 것들, 지나쳐도 될 것들에 너무
자주 너무 깊게 마음이 가닿는 탓에 우리들 시
간의 여러 부분은 생에 대한 갈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종호님의 찬양과 간증을 들으며
살아오며 힘들었던 일들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몸부림, 우리가 잡았던 손이 우리들 자존심과
자아를 건드리면 포기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데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답답한 사연 시원하
게 들어 보았습니다. 덕분에 삶의 힘든 마음
견어내고 잠시나마 은혜의 마음 머무는 곳에
서 춤을 출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간증, 서로가
용서를 하며 누군가를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
하며 내 자신 누구에게서 용서를 받을 사람인
가를 생각하며 나를 회복 시켜준 좋은 시간 속
에 내가 여기 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를 느꼈습
니다.

〈 신형섭 기자 noel109@hanmail.net 〉

교회소식 이모저모

-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6월3일 국제광림비전랜드
에서 여전도회 연합수련회
로 다녀왔습니다. 벌써 여
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와
청명한 날씨와 초록의 숲
과 맑은 공기가 어우러져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
다. 1,2,3 여전도회의 아우들 사랑과 4,5,6 여전도회의 봉사와 섬김이 조용한 가
운데 잘 어우러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도복희 회장의 명 사회, 유성훈목사님
의 은혜의 찬양, 박원호 목사님의 “새로운 피조물의 소망”이란 설교에 새 힘을
얻고, 오후엔 김미영교수의 강의와 공광승목사님이 통성기도를 이끌어 주셨
고, 마지막 남정식집사의 재치의 레크레이션으로 함박웃음의 꽃이 피어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와 봉사로 도우신 여전도회 회원님들! 감
사드립니다
〈 제2여전도회 이송희 집사 〉

- 6월 산행 안내

1. 산행일시 : 6. 13 (월)
2. 산행장소 : 남한산성
3. 집합장소 : 주님의 교회 - 9:30 / 마천역(5호선) 1번 출구 10:30
4. 산행코스 : 마천역 ~ 동서울 골프장 ~ 서문 ~ 수어장대(점심)
동장대 ~ 동문 ~ 종로 (소요시간 4시간)
5. 교 통 편 : 종합운동장에서 3314 버스 종점하차
6. 준 비 물 : 도시락, 얼음물, 간식등
7. 문 의 : 장도수 집사 (010-3008-1543)

- 20Plus 야곱 특별새벽기도회



20Plus 젊은이공동체에서는
5월 30일(월)~6월 4일(토)에
특별새벽기도회(특새) 시간
을 가졌습니다. 이번 특새는
2월 특새의 주제였던 <20+
아브라함>에 이어서 <20+야
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대학교 기말고사가 임박하고 직장이
한창 바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20~30명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들으며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특새를 통
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한편,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곱의 모습처럼 많은 기도제목과 안고 하나
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 이정민 전도사 〉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 성경_한자로 풀어보기

國家(국가)

나의 烈祖(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荒蕪(황무)하고 성문이 燒火(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愁色(수색)이 없사오리이까 (느헤미야 2장 3절)

B.C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였다. 참혹한 전쟁을 치르고 포로 신세가 된 느헤미야가 바사 왕 아닥사스다에게 탄원한 말씀이다.
현재이집관 2억 인구에 둘러싸인 800만 이스라엘은 세계최강의 군대를 가진 나라가 됐다. 금년 6월은 우리나라도 同族相殘(동족상잔)의 6.25전쟁이 勃發(발발)한지 61주
년이 되는 해이다. 힘겹게 지켜낸 국가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國家(국가)의 의미를 풀어보자.

國家(국가)의 사전적 의미는「일정한 영토와 그 곳에 사는 일정한 주민들로 이루어져 主權(주권)에 의한 통치조직을 지니고 있는 사회집단」으로 정의 하였다.

★國(나라 국)은 국경을 의미하는 口(에워쌀 위)와 만약을 의미하는 或(혹 혹)으로 구성되었으니「국경사방에 성을 쌓고 혹시 있을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집단이 국가
이다」로 풀이된다.

★或(혹 혹)은 사람의 의미가 있는 口(입 구)와 모인다는 뜻의 一(한 일)과 무기를 상징하는 戈(창 과)를 합쳐「국민들이 모여 무기를 들고 지키는 것은 혹시 있을 침략
때문이다」라고 풀이 한다.

★家(집 가)는 지붕을 뜻하는 宀(집 면)과 豕(돼지 시)로 구성되어「지붕아래 뱀의 천적인 돼지를 길러야하는 것이 집이다」라고 풀이한다. 천적을 이용하여 독사의 집
근을 막은 선조들의 지혜가 놀라울 뿐이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

|오늘의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_ 수 1:9

통 권 _ 제 286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1년 6월 12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교회는 세상 위해 쓰임 받는 공동체

_ 신앙의 지평 넓히는 섬김의 사역들



교회는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건강한 사회는 교회가 이루어야 할, 주님이 주신 소명입니다. 신앙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교회와 사회 사이의 벽을 없애고, 몸담고 있는 사회와 나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호국의 달 6월을 맞아, 주님의교회가 사회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역들을 취재했습니다. -편집자주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교회는 세상을 위해 쓰임 받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지난 6월 8일 저녁에 있었던, 수요 성경공부 중 박원호 담임 목사의 말이다. 주님의교회에서 지난 몇 년간 진행해 온, 12단계 성경공부의 9단계 '신앙의 지평을 넓혀라!'의 두 번째 강의 내용이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

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 17:11)라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병든 자를 고치고, 주린 자를 먹이며,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면서, 개인과 공동체의 온전한 복지를 전파해야 한다. 이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소명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한국 교회가 성도의 양적 성장을 목표로 내세우고, 대형 성전을 건축하는데 몰두하면서, 정작 교회 밖 세상을 품는 일에는 소홀한 느낌이 없지 않다.

10억이 넘는 인구가 식량 부족에 시달려

현대 사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크게는 세상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 전쟁과 핵의 문제, 환경의 황폐와 부족한 에너지, 세계 여러 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에서 비롯하는 문제들이다. 통계에 따르면, 10억

이 넘는 인구가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이며, 2008년 현재 1억 1,500만명이 기아 상태이고, 그중 3분의 2가 아시아 지역에 있다고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북한의 경우, 600만명이 기근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미국 평가단의 보고이다. 이밖에도 인권침해, 실업, 노사관계, 빈곤의 문제, 성적 문제, 공동체의 붕괴, 생명 복제, 물질주의의 만연 등 많은 사회문제가 날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주님의교회가 있는 송파구의 경우에도 저소득층, 여성, 영유아, 다문화가정,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문제 등을 핵심적인 복지 정책의 과제로 꼽고 있다. “이런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기독교인의 반응이, 흔히 좌절과 무력감에 빠지거나 교회가 게토가 되어 도피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기독교 영성과 지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개혁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박원호 담임목사가 힘주어 전하는 말이다.

교회 재정의 50%를 복지와 선교에 사용

“우리 주님의교회에서 대외 사역은 오랜 전통입니다. 재정의 50%를 복지와 선교에 사용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다.” 복지기획행정팀장을 맡고 있는 지호선 안수집사의 말이다. 사회에 대한 주님의교회의 관심은 개인의 구제 뿐 아니라 교육과 환경에 이르기까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주님의교회에서 나눔과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는 핵심적인 부서로 복지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다. 유성훈 목사와 장일형 장로가 사역하는 이 위원회에는 기획행정팀을 포함하여 개인 구제를 위한 구제사역팀, 단체 복지를 위한 복지사역팀,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팀, 청소년을 위한 꿈나무사역팀, 장년을 위한 전화상담사역팀, 노인을 위한 늘푸른대학팀, 장애우를 위한 사랑나무팀과 장애인사역팀,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역팀, 환경 보호를 위한 녹색사역팀 등 11개의 팀이 있으며 200명이 넘는 성도가 사역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이중 늘푸른대학은 2009년 개교하여 2010년까지 255명이 수료하였고 2011년 현재 3기 171명이 재학중이다. 또한 송파구 구립 가락본동 어린이집을 2010년부터 위탁 경영하고 있기도 하다.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송파구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박오호 집사는 “송파구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주님의교회에서 말없이 찾아 행하는 여러 복지사업의 진정성에 감탄하면서, 오히려 우리 복지팀에 전문적인 내용의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한다. 이밖에도 북한선교팀에서는 북한에 대한 기본적인 생필품과 의약품을 공급해서 기본적인 생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5,000명이 넘

< 2면에 계속... >

주간 목회력

<새가족 환영회>
6.19(주일) 오후 3:30 / 지하식당
<창립 23주년 칸타타>
6.22(주일) 오후 7:30 / 대예배실

<미지립교회 목회자초청 수련회>
6.20(월)~22(수) / 국제광림비전랜드
<영어캠프 보조교사, 자원봉사자모집>
8.4(목)~13(토) -봉사시간선택가능

<킹덤비전 영어캠프 학생모집>
신청기간: 6.19(주일), 26(주일)
<정기당회>
6.12(주일) 오후 3:30 / 대회의실

“주님의교회가 사회복지사업의 지평을 새롭게 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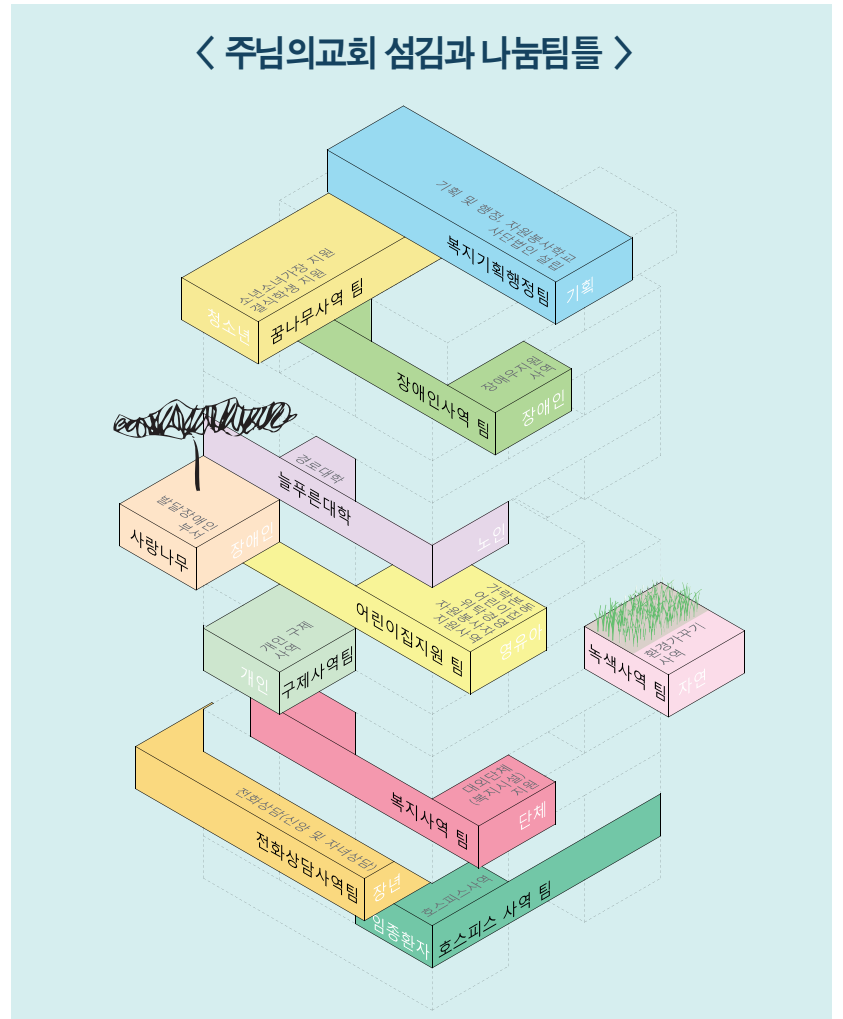
우리 주님의교회는 지난 5월17일 서울시청으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의 설립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 법인을 통해 전문성과 공적책임을 다해 사회복지와 공익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이 하나님나라의 주춧돌이 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있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_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상임이사 장일형 장로

구분	주요내용
설립목적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번영과 행복증진에 기여함
주요사업	1.노인대학(늘푸른대학) 설치 운영 2.독거노인 무료급식제공 및 시설지원 3.특수 빈곤계층 독거노인 생활지원 4.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운영조직	총 회: 회장 박원호 담임목사 이사회: 장일형(상임이사), 양동훈(이사) 김용일(이사), 김창안(이사), 김완중(감사) 사무국/사업팀: 법인사무과 사업집행
운영재원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각종 기부금(지원금) 기본재산의 과실금, 기타
발전방향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복지와 공익사업 실적을 쌓아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자 함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

“사단법인 섬김과나눔”과 함께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뜻 깊은 봉사사업에 동참하실 수 있는 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찾습니다!

- 업무: 회계 및 서무담당 (컴퓨터에 능숙한 여직원)
- 근무: 오전 또는 오후 선택 (3-4시간) - 대우: 소정의 사례비 지급
- 연락: 정의영 집사 (011-384-0305)

는 새터민이 이 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원을 통해 법률 상담과 의료 상담, 이미용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반가운 학교!

한편, 교육 분야에 대해서도 주님의교회는 오랫동안 관심을 기울여왔다. “반가운학교는 지역 사회를 섬기는 방법 중 하나로서 학습 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에게 학습과 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반가운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손천숙 권사의 말이다. “학과 수업을 보충할 뿐 아니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진로 적성 교육도 시행하면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몸과 마음이 다 튼튼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려 합니다.” 반가운학교는 2005년 3월에 개

교했다. 처음엔 방과후 학교로 주말 프로그램만 개설했으나, 2008년 ‘반가운 학교’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전일 프로그램으로 확대했다. 국어, 수학,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과학, 사회, 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미술, 영어성경 등의 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주중은 학과목 중심으로, 주말은 특기, 적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초기엔 정신여중 학생들을 중심으로 100여 명으로 출발했으나, 다수의 학생들을 집단적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학생 하나하나의 개인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반가운학교의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여겨서 매년 70여명 정도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교사와 스텝 50명 정도가 봉사하고 있으며, 졸업생 가운데 몇 명은 다시 교사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섬김과나눔” 설립

“사회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사회활동 (social action)과 사회봉사(social service)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활동은 사회 문제의 원인을 고치기 위한 정치, 경제적 활동이며, 사회봉사는 문제를 겪고 있는 개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구제와 자선 활동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이 두 가지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박원호 담임 목사는 말한다. 주님의교회에서는 교회 규모에 걸맞게,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섬김과나눔을 설립했다. 지난 5월 17일 서울시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6월 12일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주님의교회의 무소유 정신을

감안할 때 수십억 또는 수백억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복지사업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늘푸른대학 운영 및 독거노인 무료급식 사업을 시작으로 이미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송파 가락본동 어린이집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사회종합복지관 사업 등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기대합니다.”법인의 상임이사를 맡아, 쉽지 않은 섬김의 일을 감당하게 된 장일형 장로의 전언이다.

〈정경혜 기자 gracekhong@hanmail.net〉

〈김희영 기자 hykim62@hanmail.net〉

2011 주님의교회 교구수련회

2 교구

그 무엇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
(2교구 수련회를 마치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한 사람들, 일상을 돌아보며 무엇에 감사한가를 느끼는 세상을 살아가며 힘든 일들, 고통스럽고 함께 일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 세상의 아픔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고민을 한올한올 풀어가는 귀한 시간 속에서 5월의 마

지막 주말 27일과 28일 2교구 (교구담당 정요섭 목사) 수련회를 대성리 광림비전센터에서 은혜롭게 마쳤다.

함께한 교우들은 진정으로 교구 수련회를 통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일일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감



격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다. 가족 활동 시간을 통해 2교구 교우들 공동체를 느끼며 사랑을 나누었고 캠프 화이어에서 타는 불꽃을 바라보며 불꽃처럼 내 자신 태우고 나보다 당신이 잘되기를 바라며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기도를 드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를 바랐다. 은은히 드리는 초여름의 밤의 찬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28일 새벽 수련원 주변에 조성된 부활의 동산

순례길을 걸으며 한걸음 한걸음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보내며 수련회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되기를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여호와가 주신 우리 집 확실히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 따라가기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갈까?를 다시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신형섭 안수집사〉



5 교구

‘성막과 함께하는 24시간’

승동기도원, 그 곳은 우리 주님의교회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그 곳에는 2009년 1월 주님의교회에서 기증한 ‘성막’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승동교회는 1893년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설립하여 창립 118주년이 되는 교회이다) ‘성막 24시’ (하나님나라와 성막)라는 주제로 우리는 성막을 향하여 떠났고, 성막체험 24시간 후, 다시 삶의 성막으로 돌아왔다. 기획단계에서 우리 사역자들은 한 가지 원칙을 정했다. ‘이번 수련회는 전적으로 목사님의 뜻에 따른다.’ 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다. 프로그램 기획은 최용석 목사님 몫이었다. 목사님은 오직 침 없는 기도로 준비하셨다.

〈선교사 초청 예배〉 참석인원은 100명, 첫날인 5월27일 (금) 오후4시에 버스 2대로 출발한 우리들은 1시간 20분 만에 승동기도원에 도착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친 우리들은 케냐에서 오신 공인현 선교사님의 초청예배를 시작으로 수련회의 문을 열었다.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과 간증이 있는 광야의 예배는 우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

〈불기둥이 있는 캠프파이어〉 예배 후, 오후 9시30분부터



진행된 캠프파이어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불기둥을 체험’하는 소중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친교의 기쁨, 포크댄스와 함께 교구 식구들과 나눈 포옹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나라의 형제자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웃고 떠들며 환호하였다. 그 웃음과 환호와 미소 속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다.

〈새벽을 깨우다〉 둘째 날 오전 3시 반, 최용석 목사님이 새벽을 깨웠다. 아직 어두움이 짙게 드리운 성막 주위를 돌며 손을 맞잡고 기도와 찬양을 하였다. 아직 어두움이 짙게 드리운 성막 주위를 돌며 손을 맞잡고 기도와 찬양을 하였다. 그

리고 서로의 아픔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맞볼 수 있었다. 우리는 가슴으로 서로를 향해 고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막 체험 / 가면과 예수 그리스도〉 아침 7시 자유롭게 성막을 체험한 후, 오전 3시간 동안 야외에서 진행한 ‘가면’ 프로그램은 참으로 은혜 가득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 우리는 나만이 가진 죄의 가면을 쓰고 지파별로 모여 앉았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고백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의 가면을 벗겨 주시기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마지막 코스로 지성소에 들어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휘장과 함께 찢으신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면도 함께 벗었다. 우리는 이제 주님 앞에서 기꺼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전교인 수련회와는 다른 교구 수련회가 가지는 매력이 있어요. 적당한 인원이라서 분위기가 좋았고, 프로그램 구성도 훌륭했지만 친교 여건 역시 마음에 쏙 들었어요.” 교구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었다.

〈정원영 안수집사〉

8 교구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8교구 수련회

8교구 식구들은 5월27일(금) 오후 4시, 2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교회를 출발하여 목적지인 속초 (설악산)에 있는 현대 I PARK콘도를 향해 시원하게 뚫린 경춘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5월의 초록에는 모내기를 앞두고 물을 가득 가득어 둔 논, 씨래질이 끝난 논, 모내기를 기다리는 못자리, 아직 지지대만 보이는 고추밭, 무성한 감자밭과 초여름 농촌들녘들은 우리들 마음까지 풍성하게 해주었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녁식사를 한 후에 “주님의교회 집회장소”로 마련된 강당에 모여 초청일 집사의 지휘로 교구식구들과 찬양을 하였다. 윤성숙집사의 “오카리나 연주”에 이어, 이강찬 교구목사의 특강 듣는 기도(1)로 영성의 시간을, 권오승 은퇴 장로의 은혜의 시간, 윤성숙집사의 한바탕 웃음으로(웃음치료). 성찰기도 후에 거의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어갔다.

다음날 (5월28일 토) 6시에 이강찬목사의 특강 “듣는 기도” (2)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의 시간을 가진 후에 울산바위를 보며 산책을 하며 자연 속에서의 묵상을 가졌다. 예배로 경건의시간이 있던 후 각자 추억을 만드는 자유 시간에 이은 귀경길에 김일성 별장, 이승만 별장, 기념관등 역사탐방을 하며 영금정을 돌아보고 흥천 근교에 있는 막국수집에서 강원도 별미도 맛보고 교회로 돌아왔다.

이번 수련회는 초여름의 풍성함과 좋은 날씨로 오가는 여정에 90여명의 8교구 형제들과 같이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며 은혜의 “듣는 기도” 특강, 진솔한 간증의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은혜롭고 멋진 수련회였다.

어느 집사님은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간증했다. “수련회를 왜 가야 하는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교구식구 모두에게 수련회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시간이 되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했고 많은 교구식구들이 “목사님, 가을에도 교구 수련회 했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도 많았다.

8교구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목사님, 장로님, 행정팀, 금식하면 릴레이 기도해 주신 권사회,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하신 모든 교구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수련회를 기대해 본다.

〈박오호 집사〉